

특기고 (22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은 이어서 “그리고 오래도록 노역(勞役)한 사람은 의리상 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운손(曹運孫, 1468-1547, 경주부윤 慶州府尹 겸 경주진병마절제사 慶州鎭兵馬節制使 조속기 曹淑沂와 모부인 진주 송곡松谷의 진양장주 晉陽鄕鄭氏의 둘째 아들이며. 무과 급제 후 선전관, 양산군수, . 중종 때 함경도와 평안도병마절제사, 경상도좌우병영수영절도사, 한성판윤, 병조판서, 좌찬성을 역임. 시호는 장호莊胡 / 박원종의 중종반정에 앞서 연산군을 폐하러 하여, 반정 후에 공신녹권을 받았다. 중종 시대에 경상도 응천현감이 되어 삼포왜란 때 남해안의 왜구를 격파하였고, 함경도 갑산 부사, 함경도 병사, 평안도 병사로 여진족을 격퇴 평정하였다. 묘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면 어수리 뒷산 부친 묘소 바로 아래 있다)이 과연 상사(喪事)를 당하여 삼가지 못했지만, 70세 후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예문(禮文)에 있습니다. 착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적(私節)까지 하는 것은 정도에 벗어난 것이라고 여겨지며, 오래도록 노역한 사람을 한 가지 실수로 버리는 것도 미진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늙었으니 어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임금과 신하를 머리와 팔다리에 비교했는데 망각한 듯이 하는 것은 진실로 온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무릇 인륜의 일은 닦아서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고 하니,

중종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 대신으로 임용할 만한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 죽더라도 오히려 더없이 슬픈 일인데, 더구나 양연과 김안국이 잇따라 죽은 데이겠는가. 아래에서는 즉시 아뢰지 않으시면 위에서는 유언을 듣지 못했으니, 문병(問病)하는 일이 과연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매우 미안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6월에 충재 선생은 임금으로부터 중국 남송시대 주희(朱熹, 호는 회암晦庵, 1130-1200)의 문집인 “주자대전朱子大

全”한 질을 하사 받았다. 7월에 왕실의 종친인 종남도정 이억수(李億壽)의 초상이 있자, 임금이 사흘을 조화와 시장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있자, 선생은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친상(親親喪)에는 조화를 정지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어 청원하였다. 8월에 선생은 남송시대 진덕수(陳德秀, 호는 서산西山, 1178-1235)가 편찬하였고 조선조 초기부터 경연 강연에서 주요 교재였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하사받았고, 그달 24일 사마시(司馬試 : 생원·진사과)의 고시관이 되었다.

“중종실록”101권, 38년(1543 계묘) 8월 29일(신축) 1번째 기사에 「경연 석강(夕講)에 나아간 특진관 권벌이 아뢰기를, “올해에는 가을비가 재앙이 되어 곡식이 익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할까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해마다 이러한하여 공사(公私)가 다 비었으니, 흑시라도 뜻밖의 일이 변방에서 일어나 가라도 하면 마초(馬草)와 군량을 나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둥은 나뭇바라 치지 않는다.’ 하였는데, 올해에는 바람 맞아 죽은 백성이 예전보다 많으니, 하늘의 뜻이 두렵습니다. 요즘에 입거(入居)하는 일은 더욱 어지러워서 원기(怨氣)가 쌓였으니, 어찌 이변이 없겠습니까. 위리안치(圍離安置) 된 지 30년이나 된 종실(宗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무도(無道)한 짓을 했어도 위에서는 또한 유념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즘 각도의 서장(書狀)을 보니, 일찍부터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이 없다. 재변이 어찌 헛되이 일어나겠는가. 참으로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입거하는 일은 조정(朝廷)이 이미 의논해서 하였다. 그러나 함경도가 농사를 그르치면 본디부터 사는 백성의 식량도 부족할 것인데 더구나 옮기는 백성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중종 39년(1544년) 충재 선생 67세 때인 봄에 “주자대전”을 상고하면서 교정하였다. 주자학은 중국에서 원(元)나라 인종(仁宗) 년간(1313-1320)부터 과거(科擧)의 답안에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중심으로 한 유교경전해

석(石)이 모범으로 되면서부터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 청나라 말기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고려 말기에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이 성리학을 충렬왕 때(1280년)부터 원나라로부터 도입하여 조선조 말기(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 폐지)까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한국에서 조선조의 철학사나 지성사 및 학술사에서 성리학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풍토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도 정유재란 때(1597년)부터 강항(姜沆, 호는 수은龜隱, 1567-1618)이 포로가 되어 일본 교토(京都) 후시미성(伏見城)에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에게 성리학적 사상을 전수하여, 후지와라를 이어 히라이시 라잔(林羅山, 1583-1657) 이후 히라이시 가몬이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쇼군(將軍)의 시강(侍講)을 세습하여 막부 기간(1606-1867)에 주자학과 퇴계학을 수용하여 다양한 유학적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원래 명(明)나라 초기에 주희의 글을 총망라한 “주자대전”을 조선에 보내오자, 이를 교서관(校書館)에 새로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아 충재 선생이 이를 교정하고 짧은 지문(識文)을 지어 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선생이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전록五經淺見錄”을 저술하고 후일 세종 시대 집현전 학사들을 대거 배출한 사실 및 충재 선생의 “근사록近思錄” 연구와 “주자대전” 교정은 한국유학사상사나 성리학사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즉 다음 세대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 및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우계(牛溪) 성혼(成婚, 1535-1588)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의 사철논변(四七論辨)과 인심도심(人心道心) 및 이기심성(理氣心性) 논의가 명종시대부터 선조년간에 이뤄질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같은 것이다.

8월에 의정부 좌참찬 겸 세자 좌빈객 지경연사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정조공과 대구파친회 보학강좌



정조공파친회 보학강좌에서 권혁인 부회장이 강의를 하고있다.

정조공과 대구파친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년 중 행사인 보학강좌를 40여명의 회원, 가족, 자녀 등이 모인 가운데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례, 시조묘소에 대한 망배에 이어 권오덕(權五德)회장의

송조이념 고취와 보학강좌의 의의 등에 대하여 인사말이 있었으며 본회 부회장 권혁인(權赫寅) 강사는 권율도원수(權標都元帥)의 생애와 훌륭한 공적 및 발자취에 대하여 열강이 있었다.

매번 열리는 보학강좌였지만 회원들의 열심히 경청하는 진지한 모습들이 보학강좌의 의의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강의가 끝나고 식사시간에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뜻 다한 이야기로 정담을 나누며 뜻내 아쉬운 가운데 오늘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11월6일에는 지난해와 같이 파친간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수요량님과 진주 축서루 사적지를 답사하고 시종한결같이 따뜻한 정으로 보람되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다.

(총무 권혁상)

권영택 영양군수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지난 2월에 영양군청 옥상에 사업비 3억5천9백만원 예산으로(국비 50%, 군비 50%, 규모 50kw)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지난 4월에 시공회사와 입찰 및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영양풍력발전공사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요원리) 일원에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2·3차) 공사를 사업비 3,200억원(민간자본)으로 지난 3월에 MOU(영양군 - 약시오나사)와 체결하고, 5월에 시공에 들어갔으며 2차단지 준공은(2012년 12월), 3차단지 준공은(2014년 12월)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다.

(권혁세 기자)

권오성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취임

강력한 연합방위로 北도발 억제



로 취임했다.

권오성 부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강

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군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성 신임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나이트필드(Knight Field) 연병장에서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美 육군 대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겸 지상군성군사령관의

서로 신뢰를 더욱 강화하면서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데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 합참 주도, 美 한국사령부지원’이라는 새로운 동맹구조 완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권오성 부사령관의 부친 권영환씨는 현 안동권씨추밀공파 종회 이사로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제공)

권오기 前동아일보사장 별세



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193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故人은 195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향신

문, 중앙일보, 세계일보를 거쳐 1959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과 논설위원,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뒤 동아방송 보도담당 부국장을 거쳐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부사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정론직필의 강직한 언론인이었다.

김영삼 정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23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냈다. 이후 울산대 재단이사과 석좌교수,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재단 이사장, 성곡언

론문화재단이사, 국가보훈처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현대사 주역들이 말하는 정치 증언’(1986년),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아사히신문 논설주간(현 주필)과의 대담 집인 ‘한국과 일본’(2004년 일본어판) 등이 있다. 2004년에 고재욱 기념인문상을 받았다.

7일 오전 200여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일보 회사 葬으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280 정동수양관에 안장되었다.

영덕종친회 시조묘소 참배

영덕종친회(회장 권병윤)는 지난 11월 12일 관공버스편으로 45여명이 안동 시조태사공묘소(능곡)를 참배했다.

이날 권병윤 회장은 태사공묘소에서 주, 과, 포를 진설하고 함께 헌작하면서 시조 태사공 유덕을 기렸다.

이어 하산해 ‘고기쟁이 회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안동시 와룡면 가아리에 있는 ‘늘곡재사’ 부정공(휘 就正)단소를 참배하고, 안동 도산서원을 견학하고 이어서 봉화 유곡 종재 박물관을 탐방하고 귀로에 올랐다.



영덕종친회가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권병윤 회장이 헌작하고 있다.

복야공과 대구파친회

밀양 학산공(휘 삼변) 유적지 탐방



지, 영산정사 등을 둘러보면서 문화해설사의 안내설명으로 선조님의 유업을 추모했으며, 복야공과 대구파친회는 매년 1회로 선조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총무 권순현)

울산원연친목회 야유회

울산원연친목회(회장 권호영)는 연례행사로 지난 11월 6일 관광객을 대접하여 부부동반 30여명이 흥분단양에 있는 태조왕건 드라마촬영장가, 도

담상봉, 충주호 등을 관광하면서 추계야유회를 가지면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애를 돈독히 했다.

(권응목 사무국장)

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책정하였으니 대종원 발전을 위해 2012. 2월까지 납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재단	100만원
총무위원	20만원
대의원	10만원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경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농협 076-02-247343

司宰監正(諱子後)

추향 봉행

권상목씨(權相穆) 등 후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初 3일 오전 11시,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오동정촌 司宰監正 諱子侯 묘소에서 추향제를 권상진씨(權相鎭)의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경건히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상목(權相穆) △아헌관 : 권상욱(權相旭) △중헌관 : 권혁세(權赫世) △축 : 권오규(權五圭) △집사 : 권상진(權相鎭), 권영섭(權英燮)

(권혁세 기자)



사재감정(휘 자후)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종원회비를 납부하여 권문의 발전과 상부상조에 기여합시다.